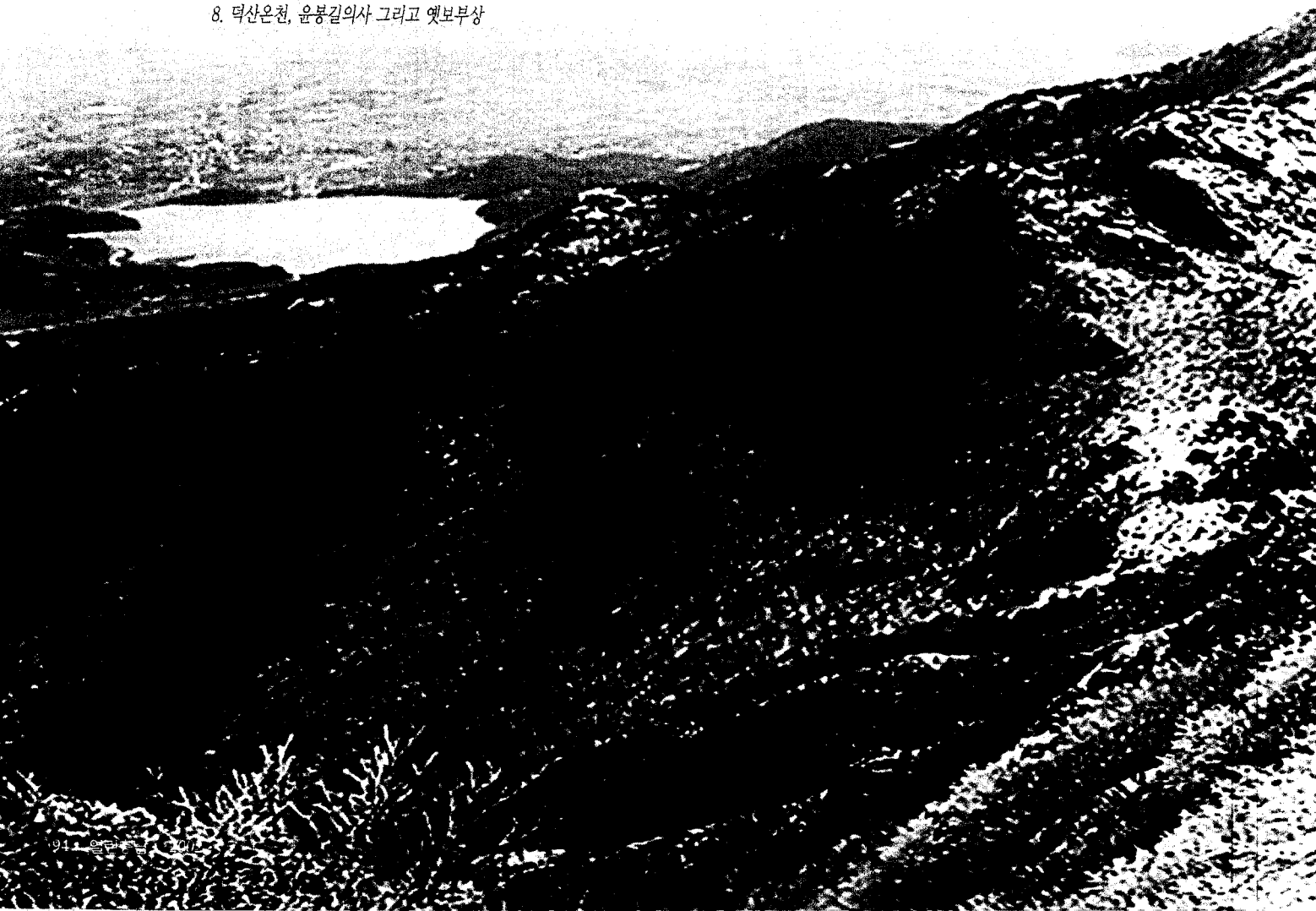


오 석 민 충청학연구부 연구위원

1. 내포의 중심, 가야산
2. 내포의 마애불, 그리고 '백제의 미소'
3. 한국 근대 선종의 중흥사찰 : 덕숭산 수덕사
4. 덕산 가야동의 문화유산
5. 용현계곡, 그 유산과 전설
6. 가야산 서록의 고찰, 그리고 해미읍성
7. 미륵이야기
8. 덕산온천, 윤봉길의사 그리고 옛보부상



가야산이라 하면 보통 합천 해인사가 위치한 산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가야'라는 지명은 한 둘이 아니다.
석가모니가 득도한 곳이 붓다 가야였으나, 불교가 역사적 흔적을 남긴 곳곳에 가야라는 지명을 남긴 것이다.
충청남도 서북부, 내포(內浦)의 중심에도 가야산이 우뚝하다. 약간은 낯설었던
내포 가야산이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성큼 곁으로 다가왔다. 서해대교를 넘어
보령에 이르기 전까지가 모두 내포땅이며, 양 끝자락이 아니라면 어렵지 않게 가야산에 접근할 수 있다.
그 산이 또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역사·문화자원의 보고이다.

우리 조상들은 산에 기대어 살았다. 집터를 산자락에 잡았고, 죽어서는 산등성이에 묻혔다. 들판은 일터였을 뿐이다. 지금 들판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과는 다르다. 인지체계가 달랐다고나 할까? 여행 중에 산꼭 초입에 수줍은 듯이 자리잡은 시골을 볼 때 아늑하다고 느끼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마을 뒷산 뒤로도 산줄기가 이어져 있다. 아버지산(主山)과 할아버지산(祖山)이 뒤를 바치고, 그 뒤 먼 곳에는 중조산(中祖山)이 우뚝하게 서 있다. 우리 선조들이 명산(名山)으로 지목한 산악은 모두 그러한 산들이었다. 마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같이 가까운 선대를 높이고, 그리고 윗대의 뛰어난 조상(顯祖)을 중시조(中始祖)로 삼았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내포 산악의 중시조가 바로 가야산이다.

한국에서 백두산처럼 산줄기가 시작된다고 믿었거나, 또는 산맥의 분기점이 되는 곳, 그리고 인근 여러 고을들이 기댄 큰 산악들은 모두 명산이었다. 내포 가야산은 여러 고을들이 기대는 산이었다. 명산에 붙은 문화유산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욱이 풍수지리에 입각하여 산을 따라 기맥(氣脈)이 흐른다고 믿었으니, 명산에 대한 집착은 더욱 깊었다.

20세기 이후 공간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 일터였던 들판은 인가로 변하고, 도로는 직선으로 개설되었다. 그러한 와중에 많은 지역이 오지로 전락하였다. 예를 들어, 남한강 주변의 고을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내포(內浦)도 그러한 곳이다.

충청도의 젖줄은 금강이다. 자고로 수상 교통이 주를 이루었던 전통시대에는 바다와 강이 산업도로의 역할을 했으니, 충청도 남부와 전라도의 북부는 금강으로

인하여 한 권역이 되었다.

그런데 충청도에 산줄기에 딱혀 금강과 차단된 곳이 있었다. 선조들은 그 산줄기를 금북정맥(錦北正脈)이라 하였고, 그곳부터 서해까지의 고장을 내포(內浦)라 불렀다. 그 중앙에 솟은 산이 가야연봉이다. 공주를 중심으로 하는 금강 권역에 계룡산이 있었다고 한다면, 홍주(洪州)가 으뜸 고을이 되었던 내포에서는 가야산이 전역을 굽어본다.

금북정맥은 차령에서 오서산까지 남진하면서 내포권을 공주권과 구분하였다. 그러나 다시 방향을 바꾸어 북진하는 산줄기는 완만한 형세를 이루었다. 다만 그 중앙에 가야산이 도드라질 뿐이다. 그런 까닭에 내포의 고을들은 대부분 가야산을 기대고 있고, 자연스럽게 내포의 조산(祖山) 구실을 하게 된 것이다.

금북정맥의 두 산줄기 사이에는 삼교천과 무한천을 중심으로 넓은 들판이 펼쳐진다. 그리고 가야산록 서쪽으로는 바다에 연한 갯고을이 자리하였다. 예당평야[옛 내포평야]를 지금은 들판이라 한다. 그러나 삼교천 방조제 완공 전에는 예산 땅까지 배가 출입하였다. 그리고 곳곳에 포구들이 즐비했으니, 해안지방과 다를 바가 없었다. 내포 땅은 모두 갯마을이었으니, '안개(內浦)'라는 지명은 그런 의미로 읽어야 할 이름이다. 발달한 갯벌은 내포의 또 다른 매력이기도 하다.

관동지방이 하늘로 솟은 거악(巨嶽)들로 빼어난 곳이라면, 내포는 비산비야(非山非野)로 대표되는 편안한 농촌 모습을 보여주는 삶의 터전이다. 일찍이 한 화가가 한국 농촌을 보려면 내포로 가라 했듯이, 높지는 않지만 아담한 산줄기가 들판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다.

가야산에서 내포 일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까닭에, 내포를 또한 가야산 주위의 고을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그 내포의 조산을 감싸 안으면서 서해안고속도로가 신설되었다. 가야산 서록을 타고 뻗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내리면, 모두 내포 땅이고, 그곳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들을 마주할 수 있다.

'가야'라는 이름에는 이미 불교의 향내가 가득하다. 가야산록 북쪽 등성이를 구분하여 상왕산(象王山)이라 부를 때에는 부처님을 대했다고 말할 도리밖에 없다. 이 산이 내포불교의 숨겨진 보고이다.

내포 불교는 마애불로 시작된다. 백화산 중턱에 있는 태안 마애삼존불은 우리 나라 마애불 역사의 첫 장을 여는 작품이다. 마애불이 석굴사원의 원조에 해당하는다는 점에서, 석굴암으로 대표되는 경주 마애불의 뿌리는 바로 태안에 있는 셈이



다. 투박한 솜씨 탓에 예술적 가치에서는 뒤떨어지지만, 여느 마애불과 달리 중앙에 키가 작은 보살입상을 놓고 좌우에 여래입상을 배치하고 있는 독특한 배치는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태안 읍내를 끼고 이원면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면 백화산 산정까지 접근할 수 있다. 태안 마애불이 있는 사찰은, 조선시대 한 때 태일조재(太一醺齋)를 담당하였던 곳(太一殿)이었다는 사실을 음미하면서 주변에 석각(石刻)이 산재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서 백화산에 이르는 길은 다소 멀다. 그러나 만리포 해수욕장이나 천리포 수목원을 찾는 길이라면 잠시 숨을 돌릴 만한 유적이다.

백제 마애불의 꽃은 상왕산 자락에 있는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이다. 한 고고학자에 의하여 '백제의 미소'로 명명되면서 백제 문화를 대표하게 되었다. 서산 마애불로 오르는 길은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 넉넉하다. 방문객들이 돌을 모아 쌓아둔 조그만 탑 사이로 오르는 계단은, 가파르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 오솔길 중턱에 마애불이 서있다. 양불이 도톰하도록 미소를 짓는 이 불상을 마주하노라면 저절로 웃음이 배어 나올 것이다. '백제인의 미소'라는 미술사계의 평가에, 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표정이 달라 보인다는 등의 해석이 더해지면서, 이미 이 불상은 백제문화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후대로 갈수록 마애불의 전통은 내륙에서 발견된다. 예산군 화전리 사면석불(보물 제794호),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마애석불(보물 제355호) 등이 그것이다. 이 또한 불교 전파의 한 경로일 것이다.

가야산의 지맥 덕숭산 자락에는 백제시대에 창건된 수덕사라는 대가람이 자리 잡고 있다. 홍성 북쪽 용봉산과 수암산, 예산 덕산면 덕숭산과 가야산, 그리고 서산의 상왕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는 모두 가야의 연봉(連峯)이다. 보원사가 있



應魯) 화백의 부인이 머물렀던 곳으로, 뜰에는 고암의 문자추상화가 새겨진 바위가 있다.

는 상왕산이 북쪽 줄기라면, 덕숭산은 남쪽 줄기가 된다. 가야산을 둘러보다 보면, 도처에 넓은 계곡에 펼쳐져 있어서 명산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수덕사는 그러한 호방한 기운을 잘 보여주는 곳이다. 백제시대에 건축된 수덕사에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목조건물인 대웅전(국보 제49호)이 남아 있다. 1934년 해체공사를 시행할 당시에 발견된 묵서명(墨書銘)에 의하면, 대웅전은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건축되었다. 단순 소박하면서도 장중하고 엄숙한 멋을 잃지 않고 있으며, 측면의 기둥과 들보는 정제된 규격미를 자랑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막상 일반인들에게는 대웅전에서 전면으로 내려다보이는 아늑한 전망이 더욱 매력적이다. 다만 최근에 복원된 2층 누각이 시야를 가려,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한다. 수덕사의 암자를 찾아 산길을 오르다 보면, 아늑한 내포 들녘의 평화로움이 한눈에 들어온다. 수덕사에 대한 애정은 관련 인물들로 하여 더욱 커진다. 우선 근대 한국 선종(禪宗)의 중흥조인 경허 성우(鏡虛 惺牛, 1849-1912) 선사의 고족 제자 만공 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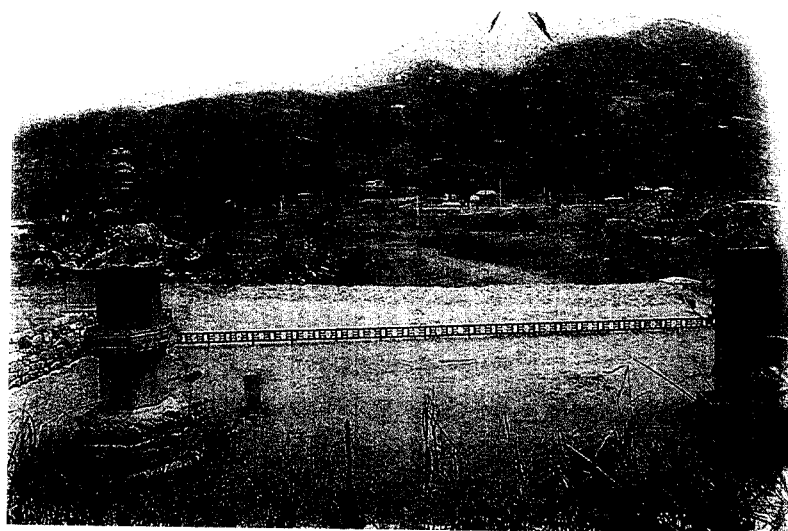
(滿空 月面, 1871-1946)의 자취가 곳곳에 배어 있다. 만공 선사는 결성 출신의 만해 한용운(卍海 韓龍雲, 1879-1944)과 교류하면서 한국불교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였던 인물로, 수덕사에 금선대(金仙臺)라는 초가 암자를 지어 살면서 제자들을 길러냈다. 그가 평생 기거했다는 소림초당(少林草堂), 교육장이었던 능인선원(能仁禪院)과 견성암(見性庵). 1924년에 조성된 용출관 음석상(湧出觀音石像), 현대적 양식의 사리탑인 만공탑 등은 모두 그의 손길이 닿은 자취들이다. 수덕사의 또 다른 매력은 비구니들의 수도원이라는 점에 있다. 일찍이 『신여자(新女子)』를 간행하는 등 여성운동가로 명성을 쌓았던 일엽 스님(金一葉, 1896-1971)이 만공 선사를 만나면서 견성암에서 머리를 깎았다. 현재 견성암의 현판은, 일엽 스님의 뒤를 따르는 100여 명의 여승들의 수도처인 덕숭총림 선방으로 옮겨져 있다. 수덕사의 입구에는 아담한 초가의 수덕여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현대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고암(顧菴) 이응로(李

수덕사를 떠난 발길은 덕산 읍내를 거쳐 가야동 골짜기로 향해야 할 것이다. 복잡 한 온천관광단지와 읍내 안길을 거쳐 서쪽으로 접어들면, 가야봉·석분봉·옥양봉 등 가야산의 주봉(主峰)들로 둘러싸인 계곡으로 들어선다. 그런데 초입에서부터 뜻밖의 유적들과 마주치게 된다. 최근에 축조된 옥계저수지 북쪽 터봉은 곧 조선 현종의 태실이 있었던 우희(遺墟)요, 그 서북쪽으로는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배형(伯兄)인 흥녕군(興寧君) 이장응(李昌應)의 묘역이 있다. 저수지 서쪽 끝자락 암벽(玉屏溪)에는 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 형제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는 가야동 일대가 원래 그 집안의 사패지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도로 개설로 인하여 반쯤은 파묻혀 버린 옥병계에는 숙종조에 김진규가 새겼다는 '玉屏溪', 성수심의 '水栽培' 등의 글귀가 완연하다. 옥병계를 지나 서북쪽으로 약 2.5km를 가면 수많은 역사적 일화를 남긴 남연군묘

가 있다. 바로 그곳이 가야사(伽耶寺)의 옛터이다. 가야사는 본래 고려시대에 건립된 대가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반란을 일으켰던 망이(亡伊)에 의하여 점거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조선왕조가 막을 내릴 무렵, 다시 남연군묘를 이장하면서 폐사(廢寺)되는 비운을 맞이하였다. 구전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남연군묘는 당시 정만인(鄭萬仁)이라는 지관이 택한 곳으로, 이대천자지지(二代天子之地)의 명당이라고 한다. 그리고 금북정맥의 남쪽 끝 오서산이 만대영화지지(萬代榮華之地)로 가야산의 짝을 이룬다. 남연군묘가 옮겨오면서, 인근 땅은 운씨 일문에서 고종 천가 소유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장 후에, 흥선대원군은 맞은편 서원산에 큰 아들(李載冕)을 시주자로 하여

보덕사(報德寺)라는 사찰을 창건하였다. 보덕사는 조선 왕실의 마지막 원찰(願刹)인 것이다. 그러나 보덕사 또한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고, 다시 지어져서는 비구니들의 수도도량으로 변했다. 그 경내에는 가야사에서 옮긴 것으로 보이는 화사석(花舍石)이 남아 있다. 조선 말 풍수설에 얽힌 논란은 지금까지도 이어진다. 최근 유명 풍수가인 육관대사가 남연군묘 서쪽에 자신의 묘역을 스스로 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도 금북정맥으로 싸인 골골마다 지도층 인사들이 묘역을 정하고 있으니, 명당 자리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끝날 일이 아닌 모양이다. 남연군묘는 1989년 12월 29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기념물 80호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또 다시 1998년 12월 29일 가야사가 충청남도 기념물 150호에 올랐다. 문화재 지정문제까지도 복잡하기 그지없다. 내포에는 드물게 큰 산이고, 천하의 병산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으니, 사건이 적을 리 없다. 가야동은 한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다. 그곳에서 계곡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미륵을 뒤로하고 북쪽 산 속으로 들면 일제시대의 군사도로가 있다. 그 도로변 밤나무단지를 지나 고개를 넘으면, 보원사의 옛 터와 서산 마애불이 있는 용현계곡이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버스도 다녔던 길로 넘지 못할 바는 아니나, 지금은 많이 허물어져서 일반 승용차로 넘기 어려우므로, 서산시 운산면으로 우회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 보원사지 전경



▲ 보원사지 철불

덕산을 떠나 운산으로 돌아드는 용현계곡 초입은, 돌무더기 위에 얹힌 돌장승으로 시작된다. 이 장승은 원래 고평저수지에 잠긴 옛 길에서 있었다고 한다. 그 때에는 밖을 향하지 않고 계곡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여, 주민들 간에 이야기가 많았다고 한다. 용현계곡은 인근에서는 가장 깊어서, 여름철에는 많은 주민들이 물린다. 그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앞서 언급한 서산마애삼존불이 있다. 계곡을 더 들어서면, 고려조의 절터 보원사지(사적 316호)를 만난다. 그런데 마애불에 도착하기 앞서 만나는 나즈막한 절벽, 그리고 그 옆에 웅크린 듯한 조그만 바위가 보원사의 흥망과 관련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어서 흥미롭다. 서산 마애불을 간직한 고란사로 접어들기 직전에 마주치는 절벽이 '인바위'이다. 그 바위 안에는 전설 속의 상왕(象王)이 인(印)을 감추어 두었으며,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캐내려고 하자 뇌성벽력이 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고양이바위'는 풍수지리로 보원사의 쇠망을 설명한다. 서산 마애불이 있는 산록은 '쥐가 밭으로 내려오는 형국'이고, 그 숲 속에 '쥐바위'가 있다. 그런데 개천을

사이에 두고 '고양이바위'와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개울이 있어서 쥐를 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원사가 번창하면서 소속 암자가 100개가 되었고, 이에 고양이가 개천을 건너 쥐를 공격하였다고 한다. 이후 보원사가 망했다고 ... 인바위에서 개천으로 내려가면, 옛 홍예교(虹霓橋)의 축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인바위는 옛 진입로의 입구에 해당했던 셈이다. 마애불을 지나면 좁은 입구에 비하여 점점 넓은 계곡을 접하게 된다. 보원사지는 넓은 분지에 둘러싸인 옛 절이다. 경역이 넓다 보니 동학전쟁 때에는 농민군들이 모여서 훈련을 하였다고도 한다. 보원사는 최소한 신라 흥덕왕(827) 이전부터 있었던 사찰로서, 의상(義湘)을 계승한 화엄십사(華嚴十寺) 중의 하나로 교세를 떨쳤다고 한다. 그러나 화엄종이 약화되기 시작한 고려 무신정권 때부터 사세가 기울기 시작한 것으로 짐작되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끝으로, 1619년의 『호산록(湖山錄)』에는 이미 전우(殿宇)가 모두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보원사는 1530년~1619년 사이에 폐사된 것이다. 보원사지(사적 제316호)에는 현재 석조(石槽, 보물 제102호), 당간지주(幢竿支柱, 보물 제103호), 오층석탑(보물 제104호), 법안국사 보승탑(法印國師 寶乘塔,

보물 제105호), 법안국사 보승탑비(寶乘塔碑, 보물 제106호)가 남아 있다. 사찰은 없더라도, 남은 유적들을 감상하면 다소의 감흥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용현계곡 주변에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절터들이 산재해 있다. 전설상의 보원사에 속한 100번째 암자라는 백암사지(白庵寺址)가 옥양봉 아래에 있고, 원평리 신사동과 의현동 일원, 그리고 서쪽으로 용현리 보현동까지 알려지지 않은 절터는 모두 조사를 기다리는 미답의 유적들이다. 가야산을 오르는 등산길이라면 둘러볼 수 있는 곳들이다. 가야 연봉의 서쪽 사면의 불교유적은 태봉리의 문수사(文殊寺)로부터 시작된다. 제3공화국 삼선개헌 당시에 조성한 목장을 지나면 명종대왕의 태실(胎室)이 있는 태봉리에 이르게 되고, 다시 문수동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산사(山寺)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가야산북 서북쪽의 목초지는 우리의 눈에는 낯선 풍경이 느껴진다. 태봉산(胎封山) 서쪽 아래 마을은 태봉리요, 동북쪽 문수사 아래 마을은 문수동이다. 태봉리는 태실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일 터이고, 문수동은 문수사 때문에 생



과하여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농가들을 지나면 신창저수지의 높은 제방을 마주하게 된다. 그 옆으로 신설된 길을 오르면, 넓은 호수를 대할 수 있다. 원래의 길은 제방의 면을 따라 비스듬하게 나 있어서 한층 운치가 더했었다.

저수지를 굽이돌아 한참을 가다보면, 개심사 아래 사하촌(寺下村)인 동구말에 도착하게 된다. 동구말도 공사로 인하여 옛 모습이 많이 바랬다. 동구말 초입 저수지 끝자락에 외롭게 서있는 느티나무는 동구말의 서낭나무라 한다. 이 나무 때문에 도로가 비껴간다고 하니, 옛날과는 다소 달라진 행정당국을 보는 듯하다.

일제강점기의 기록에는 개심사 주변에 수령 천년이 넘는 느티나무를 비롯하여 파나무·밤나무·참나무·모감주나무·향나무·단풍나무 등이 군락을 이룬다고 했으나, 지금은 동구말에서 개심사 길로 접어드는 입구 양쪽에 느티나무가 눈에 띄는 뿐이다. 오히려 방문객들을 반기는 것은 가슴까지 후련하게 해주는 쪽쪽 뽕은 적송(赤松)들의 고운 자태와 은은한 솔향이다.

이 솔향을 즐기려면 늦가을 이후가 제격일 것이다. 그런데 소나무들을 자세히 보노라면, 줄기마다 그물 모양의 생채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송진을 채취했던 흔적이라 하니, 이 또한 역사의 자취이다.



▲ 개심사의 물

늦가을의 서늘한 솔향에 못지 않게, 봄철은 흐드러진 꽃향기에 취할 수 있는 때이다. 이곳은 한 권의 기행문 때문에 명소가 되어 버렸다. 사시사철 화객(畵客)들의 붓놀림으로, 산사의 호젓함은 이미 깨어졌다. 더욱이 4~5월이 되면 꽃향기에 취한 내방객들의 수선거림이 더해지면서 고요함마저 잃어버렸다.

수도에 방해가 된다 하여 불평을 터뜨리는 스님들도 있다 한다. 하지만 고찰 자체가 선대의 유산이고, 내방객들도 후손으로서 즐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수도처를 격리하는 것이 순서는 아닐런지?

호젓한 길을 지나 경내로 접어들라치면, 굽은 나무를 그대로 살린 종루(鐘樓)를 지나게 된다. 온통 굽은 나무로만 지은



▲ 일제강점기 때에 송진을 채취한 흔적

듯한 십검당(尋劍堂,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58호)과 요사채는 자연스러움의 진면목을 먼저 엿보게 하는 건물이다. 이 절에서는 굽은 나무를 그대로 살린 멋을



한껏 엿볼 수 있다. 개심사는 이처럼 자연스러움이 매력인 곳이다.

개심사에는 대웅전(보물 제143호),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264호), 명부전(冥府殿,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94호), 심검당 등의 문화재가 있다. 그러나 정작 사찰이 언제 세워졌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1941년 대웅전을 해체 수리할 때 발견된 묵서명(墨書銘)에 1484년에 대웅전을 중창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짐작할 뿐이다.

그런데 사찰과 관련된 일화들이 더 우리의 관심을 끈다. 역사의 향기는 심검당에 근대 한국 선종(禪宗)의 중흥조인 경허성우(鏡虛 惺牛, 1849~1912)가 거처하였다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왕비와 부마도위를 배출하고 김정희라는 큰 학자를 낳았던 경주 김씨와의 인연은 조선 후기 역사의 뒷면을 읽으려는 사람들에게 발길을 돌리지 못하게 만든다.

개심사와 속칭 ‘한다리 김씨’라고 부르는 집안과의 인연은 김연(金堧, 1494~?)으로부터 시작된다. 그의 계모 황씨의 고향이 바로 한다리였는데, 증손 김홍욱(金弘郁, 1602~1654) 대에 이르러서 명분가로 등장한다. 그리고 현손 김한신(金漢薰, 月城尉)이 영조의 따님인 화순옹주(和順翁主)와 혼인하고, 또한 그의 8촌 형제인 김한구(金漢耆)의 장녀가 영조의 계비(繼妃, 貞純王后)가 되니, 한다리 김씨

는 왕실과 연혼(連婚)을 맺은 내외척(內外戚)이 된 것이다. 수렴청정을 행했던 세도가문, 추사 김정희는 바로 그러한 일문의 월성위 김한신의 증손이다.

한다리 김씨와 개심사와의 인연은 이주 초기부터 시작되었던 듯하다. 임향조 김연의 계모 황씨의 묘소는 개심사의 내청룡에 자리잡고 있다. 그런 탓인지 철종 때 개심사 중창에는 김씨 일문이 대대적으로 참여한다. 김홍욱을 비롯한 김적(金積)의 네 아들의 후손들이 모두 불사에 참여하였음은 물론이요, 왕실과 인척이 된 이후에는 상궁(尙宮) 우씨, 서산군수와 당진현감이 시주로 있어서 왕실의 지원까지 더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연이 있으니, 개심사와 함께 추사고택, 그리고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 한다리마을의 정순왕후생가(충청남도 기념물 제68호), 김기현고가(중요민속자료 제199호), 그리고 김적의 자취가 남아 있는 용유대와 단구대를 거치는 여정도 생각해볼 만하다.

아직 임도(林道)가 완공되지 않았으므로 일락사로 가려면 해미읍성을 거쳐야 한다. 성곽 동쪽을 감싸 돌다가 하천을 건너면 일락골에 있는 황락리라는 마을이 나타난다. 마을을 지나는 도중 회관 뒤편을 보면 미륵불이 조용히 서있는 모습이 이채롭다. 해미읍성을 중심으로 하는 4방향의 비보장승 가운데 하나라는 이야기

가 전해지며, 또한 내방객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정작 마을 사람들은 무덤덤하며, 마을회관 자리에 있던 서낭나무에서 서낭제를 지낼 때에도, 미륵을 모신 일은 없다고 한다.

황락리 미륵불을 지나 일락사로 가는 길에도 큰 저수지를 만날 수 있다. 가야산 서쪽 사면에는 큰 하천이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논농사를 짓기 위하여 골짜기마다 물을 가둔 때문이다.

석문봉 아래에 위치한 일락사에는 고려시대 양식의 3층 석탑이 있으나, 창건연대는 불확실하다. 다만 1649년 해미읍성을 중수할 때 일락사 대웅전을 함께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관심을 끈다.

해미읍성은 천주교도의 순교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해미읍성은 왜구가 준동하던 조선 태종 14년(1414) 가야산 너머 덕산에 있던 충청병마절도사영을 옮긴 후, 효종 2년(1651) 다시 청주로 이전하기 전까지 충청도 서해안의 군사요충지였던 곳이다.

현 해미읍성에서 서북쪽으로 서산까지 뻗은 국도변에 위치한 반양리에는 구해매[또는 반계]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그곳에서 서쪽으로 불과 2km 지점까지 바닷물이 차올랐다고 한다. 그리고 보면 해미읍성은 육지와 바다를 겸할 목적으로 가야산을 등져서 설치된 병영시설로 보아 틀림이 없다. 실제로 해미읍성 동현

뒤편 낮은 언덕에 오르면 안면도에 이르는 해역이 보인다. 1649년의 일락사 중수도 이러한 군사정책과 연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시작된 4월의 해미읍성 역사문화체험축제는 걷조해지기 쉬운 역사탐방길에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읍성 내 복원작업이 완료되고, 고증을 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황락리 미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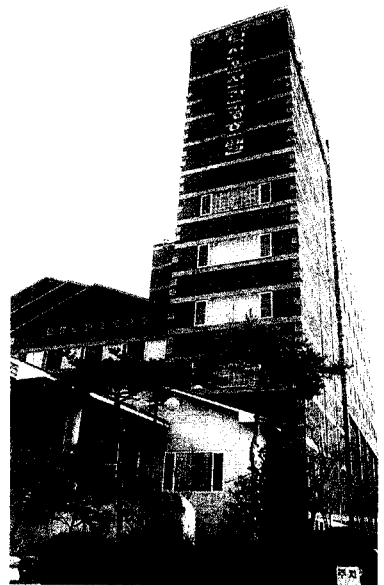


황락리 외에도 조산리와 반양리에도 미륵이 있고, 얼마 전 분실된 산수리에도 미륵이 있었다. 일부 민속학자들은 막연한 추정에만 근거하여, 해미읍성을 중심으로 사방에 세워진 비보장승이며, 최근까지도 공동의례를 행하던 대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비보(裨補) 여부는 확실치 않으며, 각 미륵불도 무속인들이 굿터인 경우, 마을제사의 한 부분[미륵제]인 경우, 그리고 방치된 석물(石物)에 불과한 경우 등 한가지가 아니다.

미륵제의 대상이었던 반양리 미륵은 이미 대응전에 자리잡았다. 미륵을 관리하여 왔던 주민의 따님이 수덕사에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고, 과거 절터였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좇아서 미륵님이 서 있던 곳, 자신이 태어난 집을 헐고 미륵사라는 절을 지은 것이다. 절 표지판이 있으니 찾는 길은 어렵지 않다.

조산리 미륵에는 매년 두 차례씩 무속인들이 찾아와 굿판을 벌인다. 최근에 개통된 해미 우회도로변 집 뒤뜰에 위치한 관계로 여간 조심하지 않고는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미륵님의 경우, 굿터를 단장하였다고는 하나, 무속 신도였던 이장의 노력에 불과할 뿐으로, 다른 주민들은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황락리 미륵은 마을 주민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산수리

에서는 저수지 축조와 함께 마을이 수몰되는 와중에 분실되었다. 그리고 보면 미륵불의 운명도 한가지는 아닌 듯싶다. 가야산 주변의 미륵불은 이 뿐만이 아니다. 필자의 간단한 답사만으로도 최근에 유실된 미륵, 또는 인근 사찰에서 모시고 있는 불상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가야산 주변도 미륵불의 중요한 고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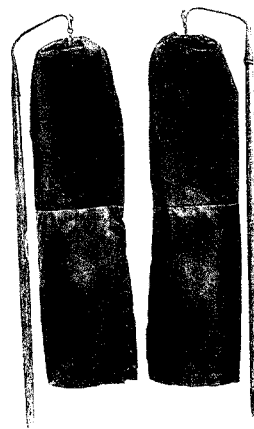


가야산 자락에는 덕산온천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덕산온천관광단지에 이웃한

‘목بار리’ 마을이 매천 윤봉길 의사가 나고 자란 곳이다. 옛 주막거리였던 목بار리 마을 옆을 흐르는 개천 가운데의 도중도라는 이름의 하중도(河中島)가 태어난 집이고, 큰 길가의 초가집이 성장한 곳이다. 목بار리 주막에도 광천에서 오는 어물(魚物)을 취급하는 상인들이 묵었으므로, 맑은 시내가 흘러야 했다. 어물을 찬물에 담가 두어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윤봉길 의사는 그 개천이 흐르는 하중도에서 출생하고, 주막 옆 초가에서 성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웃한 덕산 읍내는 옛 보부상단(裨負商團) 가운데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예덕상무사(禮德商務社)의 본거지이다. 조선 후기 상업 발전과 함께 등짐장수(負商)와 방물장수(襐商)들이 성장하고, 조직을 결성하기까지 했다. 상무사는 이러한 두 조직을 통합·관리하려고 정부에서 결성한 단체이다.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던 상무사 가운데, 현재 모시가 많이 나는 저산팔읍(苧産八邑), 그리고 예덕(禮德)의 상무사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예덕상무사의 유품(24종 25점)이 중요민속자료(제30호)로 지정되어 있다. 덕산면사무소 한 귀퉁이에 옛 장꾼의 위패와 이웃하여 자리한 모양이 다소 초라하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들러 볼 만할 것이다. 윤봉길 의사는 덕산온천단지와 이웃한



▲ 예덕상무사와 보부상 유품

곳에서 후손들을 맞는다. 방계의 후손이 희사한 부지에 조성된 주차장에서 충의사, 생가지 등을 찾는 길목과 언덕배기에 서 온천단지를 쉽게 내다볼 수 있다. 온천단지에 조성된, 그리고 조성될 편의 시설을 이용하면, 덕산 유적지를 찾는 길이 한층 수월할 것이다. 윤봉길 의사의 유적, 그리고 가야동의 유적과 수덕사 등이 모두 지척이다. 그런 의미에서 덕산단지는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해미 나들목을 나서면 해미읍성이고, 산길을 따라 고개를 넘으면 덕산이고, 해미읍성을 서쪽으로 굽이돌아 가야산록 서편의 지방도를 따르면 목초지를 따라 개심사 등 고찰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김좌진·한용운 선생의 유적지도 멀지 않다. 그리고 조금 더 길을 재촉하면 천수만과 안면도에 이어 서해가 다가선다. 서울에 살더라도, 내포가 이제는 가볼 만한 곳이 되었다.